城東区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 保護・支援政策

Seongdong-gu Initiatives for Key(Essential) Workers

城東区長 チョン・ウォンオ(鄭愿伍)

Mayor Won-O, CHONG





1. 城 視 東 K 線 \mathcal{O} 2. 城 接 東 ソ ン K ン \mathcal{O} 近 3. 城 東 政 策 ソ K ン ン \mathcal{O} 4. 努 力 結 実 \mathcal{O} 5. 今 後 課 題 \mathcal{O}

1. 城東の視線

推進事例 CASE

Hidden Heroes of Korea's Response to COVID-19

3無(3NO)-恐慌・買占め・封鎖-の秘訣はK-防疫

3NO-No Chaos, No Panic-Buying, No Lockdown-resulted form K-Response to COVID-19

宅配、介護、医療など社会で必須の労働が止まらないお陰でK-防疫が維持

Thanks for Workers who conduct a range of operations and services in industries that are essential to ensure the continuity of critical functions, from keeping us safe, to ensuring food is available at markets, to taking care of the sick

1日中食品や生活必需品などほ とんどの物が玄関まで配送

Almost everything (grocery, necessaries etc.) door to door all day delivery

コロナ禍の診断と治療で保健医療従事者は激務

Health care workers burnout



施設や在宅(訪問)など(主に)社会的弱者層に地域社会でサービスを提供

Facilities and In-Home Welfare Services in Community

共同住宅管理・清掃 公共交通の従事者など

> Security guard, Cleaner(Housing) Transportation Services

1. 城東の視線

推進事例 CASE

•Why Seongdong-gu Focusing on 'Workers'

K-防疫の隠れた英雄である社会必須の労働を続ける労働者の現実を見てみると… Key(Essential) Workers' Working Conditions

身体的危険

Infections Risk in workplace

経済的危険

Economic Risk

低い社会的処遇

Undervalued

感染に晒される医療人、社会福祉及び介護労働者、宅配・物流従事者

through close contact with infected people in the health and care sectors;

in other contact sectors, such as retail and public transport,

where workers are in proximity with the general public etc.

大部分が最低賃金レベル程度の賃金や不安定な雇用形態、そして労働市場

での地位

essential workers who has kept the country functioning are critical,

but often low-paid work(as minimum wage) and unstable status

彼らがコロナ19で耐え忍ぶ危険に比べ、経済的補償も身体的保護も無い上

に差別まで

discrimination, risk of infections and working condition as shown

they are undervalued, should deserve better

1週間にマスク3枚…最低限の保護装具であるマスクすらまともに支給されないことも…

防疫の最も基本である防護服についても彼らは差別を受ける。比較的最近設立された**C**総合病院に勤務する<mark>清掃労働者シン・ジュへさん(仮名)はコロナ陽性患者がいる隔離病室を主に清掃する。週6日働くシンさんに病院が支給するマスクは1週間でたった3枚である。</mark>『コロナ禍になる前はむしろ病院のあちこちにマスクが配置されていた。ところが昨年

2. 城東の接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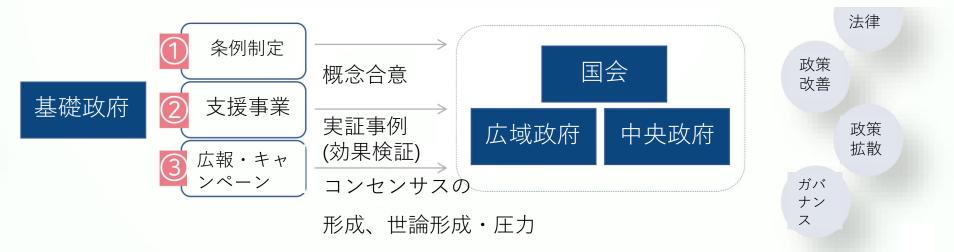
推進事例 CASE

● 城東区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保護・支援に関する条例制定に着手



General Process | 地域で捉え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基礎-広域-中央政府を経た後、法律の制・改定時には数年の時間(通常3年以上)を所要。時には最適な時期を逃す

Seongdong-gu Process | 法律が包括的ではない場合、地方政府がまず自治的解決策を策定 条例に反映させて新規制度を導入すれば迅速かつ的確に政府が介入して問題解決が可能 数年の時間を1年以内に短縮可能、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条例は法律制定まで8カ月所要



推進事例 CASE

● (①条例制定前)海外事例の調査

コロナ禍でも止まらずに市民の日常を支えるべく労働する人々、海外では彼らを必須労働者-Essential workers, Key Workers-と呼び、彼らの献身的で犠牲的労働に対する感謝と尊敬を表し、彼らを社会的に支持する市民の自発的キャンペーンとカナダ・米・英では支援事業の推進を発見('20.10.基準)





英雑誌ヴォーグ、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を雑誌の表紙に採用

カナダ:個人口座に最大16週間1,600カナダドル直接支援 (140万ウォン)

米国: 2千億ドル規模のファンドを設立し保険料を間接支援(米民主党立法推進)米民主党大統領候補ジョー・バイデン、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賃金引上げを公約に

英国: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へのコロナウィルス無料 検診及び子女への学校·保育施設の開放

主要国支援事業推進現況(21.5.基準)

推進事例

城東区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に関する条例制定

城東区は国内で初めて

必須労働者(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と名を呼び、必須労働の価値に光を当てた 「ソウル特別市城東区必須労働者保護及び支援に関する条例」を制定・公布・施行(2020.9.10.)

条例構成、15の条文

- ・条例目的
-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等 の定義、条例の適用範囲
- ・実態調査の実施
- ・基本計画樹立(5年ごと)、支 援事業
- ・委員会設置及び構成(10名以 内)、運営
- ・中央政府及び他地方政府と 協力体系構築規定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10.]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377호, 2020. 9. 10., 제정]



ソウル新聞

危険を冒して現場を護る…「必須労働者条例」を制定した城東

ソウル市議会、広域市初の条例制定の早さ…城東区が先月10 日全国初で制定した必須労働者条例案は医療・介護・福祉・安全・ 物流•運送等住民…

2020.10.9





推進事例 CASE

• (①条例制定後)実態調査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とは

公共安全、公共管理、介護、福祉、保育、物流、運送など災難時にも社会機能を維持して国民の生命及び 安全と財産を保護し、日常生活維持のために対面業務を続けねばならない業種の従事者

城東区は現在6業種、6,708名の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を1総括部署(雇用課)、7専門部署が保護・支援中

分野(業種)		細部職群	人員数 (名)	管理部署
保育	保育園、地域児 童センター等	園長,担任教師,延長保育教師,調理師 ヌリ課程補助教師,補助教師,保育助手,子守り	1,723	女性家族課
介護	老人福祉セン ター等	代表者,管理職,運転手,調理師,栄養士,介護士,理学療法士,看護師,生活支援士,障がい者活動支援士,社会福祉士,リハビリ教師,通訳士,作業療法士, その他	2,652	高齢障がい者福 祉課
	介護センター	代表者,生活福祉士,介護教師,調理師,事務員	149	児童青年課
福祉	自立支援センター 等	代表者,管理職,相談員,栄養士,生活福祉士,生活指導員,事務員,管理人,調理員,設備技師,介護士	131	基礎福祉課
	福祉館等	社会福祉士等従事者	69	福祉政策課
保健医療	中・小規模病・医院	清掃員,管理員,調理師,その他	96	保健医療課
運送	コミュニティバス	運転手	131	交通行政課
共同住宅	共同住宅	清掃員,管理員(警備員)	1,757	共同住宅課
	6,708	雇用課(総括)		

推進事例 CASE

• ②支援事業:健康及び安全保護

安全装具の支給



マスク1,350,560枚、手指消毒剤75,992個を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 ₃6,500余名(支給時点基準)に優先支給

6カ月間1人当たり207枚支給

第1次('20.9.25):6,332名マスク316,600枚、手指消毒剤24,224個支援 第2次('20.12.17):6,342名マスク190,260枚、手指消毒剤25,368個支援 第3次('21.2.3):6,513名マスク198,000枚、手指消毒剤26,400個支援 第4次('21.4.7):6,571名マスク646,300枚支援

無料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支援及び定期検診 各種予防接種等でも優先支援及び定期検診

서울신문

2020년 11월 02일 월요일 012면 전국

성동 "필수노동자 여러분, 독감 예방접종 무료입니다"

새 조례로 지원위 구성·실태조사 추진 돌봄·보육·경비인력 등 4300명에 혜택

서울 성동구가 재난 상황에도 일상생활 유지 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 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 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도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 노동을 하는 돌봄 보 건의료 불류당중 중사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지 정하고, 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필수노동자 지워 및 남중에 과화 주례를 제정했다.



구는 조례에 따라 필수노동 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저 원 계획 수립을 위해 종사자 현황 및 근무여건 파악 등 설

태조사를 추진한다. 공공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위험 당과 안전장구 지급, 건강관리 지원 등 현물 비스지원 등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구는 지난달 25일 요양보호사, 경비노 자 등 총 5500명에게 KF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전장구를 1차로 지급했으며 2차로 독감백 무료 접종에 나섰다. 접종은 지난달 22일부 시작해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돌봄, 보육, 대 교통 근천자, 공동주배 경비인력 등 4300여명이 대상이다. 의료기관 15곳에서 점종함 수 있으는 비 대상이구 홈페이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함 1 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시 무료 접종 대상 5 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지점해야 가는 병식 제고량 여부를 확인하고 혼주 일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약 후 방문하기들을 했다. 정원오사진) 성동구정장은 "필수노동자 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번 무료 작업품 등 단 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 정책의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 등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 문을 나눠 진행할 예약 이라고 말했다.

문경근기자 mk5227@seoul.co.k

心理治療プログラム支援

高強度激務に悩まされる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為 の心理治療プログラムを支援

オンライン心理検査、モバイル自己診断検査、非対面 相談、

24時間心理相談ホットラインの運営などにより 156名の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が利用

성동구, 필수노동자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음 김근영 기자 │ ② 승인 2020.11.18 19:11 │ ഈ 댓글 0

推進事例 CASE

● ②支援事業:ワクチン100%+接種(予約)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が安全に働けるようにまず、迅速なワクチン接種を提案

- ・ワクチン優先接種対象者の拡大指定を政府に建議、共同住宅管理員(警備員)、清掃労働者→自治体の3次 自主接種に反映
- ・ワクチン優先接種対象者の接種時期を早めるよう政府に建議→第3四半期予定の教育・保育施設従事者を 第2四半期に変更
- ・ワクチン優先接種時、1次と2次の接種間隔を狭める為にファイザー又はモデルナ等にワクチン種の変更を建議→反映





- 一人の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も見逃さない為の城東区の努力
- ・1総括部署(雇用課)、必須業種管理7部署(高齢障がい者福祉課他)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に常時連結
- ・区庁部署の細かい現状把握及び分析
- ・ワクチン死角地帯を発掘した後、優先接種対象者として反映
- ・必須業種-勤務機関及び施設-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年齢等を組み合わせて政府の優先接種対象者及びワクチン接種第2·第3四半期計画を基に分析、ワクチン死角地帯を発掘
- →青少年施設のうち「青少年シェルター」従事者は保育·教育施設優先接種の対象外だった
- →共同住宅管理員(警備員)及び清掃労働者は政府未指定の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
- →'20.7.31.時点で未接種者約320余名を確認し、自治体の3次自主接種対象者 として優先指定

推進事例 CASE

③広報・キャンペーン: 『ありがとう、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











『ありがとう、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キャンペーン ヨム・テヨン水原市長、ソン・ハジン全羅北道知事、ファン・ミョンソン論山市長等

全国400余名の自治体首長及び機関長が参加

「青い目の韓国人」と呼ばれるジェフリー・ジョーンズ 駐韓米国商工会議所会長をはじめロバート・ラブソン駐 韓米国大使代理、マリア・カスティヨ・フェルナンデス駐 韓EU大使、キャサリン・レイファー駐韓オーストラリア 大使、フィリップ・タナー駐韓ニュージーランド大使等、 世界各地の外交官らも参加

地域社会で住民もお互いに応援し自発的に参加

推進事例 CASE

③広報・キャンペーン: 共同住宅警備員→管理員に呼称改善運動





警備員呼称改善運動を通じてお互いを尊重する共 同住宅文化が形成されるようにします。

必須労働者条例に続き管理員を尊重する条例制定によって、彼らの為に詰所の冷暖房設置、休憩室づくり等、勤務施設の改善も実際に行われるように最善を尽くします。

チョン・ウォンオ区長(21.4.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5.]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440호, 2021. 7. 15., 제

서울특별시 성동구(공동주택과), 02-2286-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원등 간에 상흥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도주택 관리문항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박정에 기여항을 목적으로 항

'성동구', 상반기 35개 아파트 경비초소 냉난방 시설 설치하고 휴게실 만들어

서울 성동구는 올해 상반기 지역 내 공동주택 35개 단지에 관리원과 미화원의 휴게실을 만들고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 2021. 5. 14.

- ・共同住宅管理員等の人権保護及び増進に関する条例制定(21.7.15.)
- ・共同住宅管理員・清掃員の勤務環境施設の改善と同時に電気代を支援

推進事例

③広報・キャンペーン: フォーラム・討論会・カンファレンス及び言論活動

'비대면 일상' 떠받치는 필수 노동자…"걸맞은 대우와 지원을"

월째에 접어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 회의 풍속도를 바뀌놓았다. 원격수업, 재택 근무, 방구석 콘서트, 랜선 여행, 홈코노미 (집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행 테, 온택트(온라인을 봉한 접촉)….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비대면'만으로는 세상 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안 저하 '진통'을 위해서는 누구가는 사관과 시 람 사이를 오가며 '연결'을 해줘야 한다. 백 배 노동자가 한 예다. 보건의료, 돌봄노동처 램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일도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에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영국-케나다 등 외국에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을 '필수 노토자(에세션 의귀) 또는 '해시 노토지'된 위케라고 부르며 보호와 지원을 해주고 있 다. 대체로 의료・돌봄-보육·치안・교통-물 로 보야 조사자들이 여기에 해다되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 '평수 노동'이라는 개념 자 체가 날셨다. 더욱이 '평수 노토에 해당하는 언무의 상단수는 '저인근-봉안전 노동'과 동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요약 서비스는 사회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림자 취급으 #60대 그림자취급을 해왔다."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노우정5마취 지난 시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는 돌봄노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천박하다고 포집었다. 국가가 필요성을 인 저임금·고용불안·괴로에 '시름' 정해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하는 사업 암에도 정부가 공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 성동구 '필수 노동자 조례' 첫 제정 고, 그러다 보니 돌봄노동 자체가 존중받지 "광역단체·중앙정부로 확대 필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금과 영약한 치 유, 교용 불안은 당연한 귀결이다. 전국요양 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자 확산 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이기도 한 그는 "올 봉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대면 접촉 을 해야 하는 언무의 특성상 파스크 지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지자체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들이 알이 서 마스크 구입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요양 수급자나 그 의 가족이 '감염될까 불안하다'며 서비스 중 다음 요청해 하루아침에 입자리를 입는 건 우도 많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수 노동자의 그림자 노동에 대한 존중과 그 가치에 대한 사회장이 재평가 전국서비 스산업노조연맹)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

■ 필수 노동자 지원 첫발 국내에서도 될 수 노동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그들을 지원 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 성동구기 지나 10일 곳포하 '평수 노돗자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 염병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의어로 받아들여진다. 돌봉-배배-배달 등 백병-노동자 교로사 대체위원회 처럼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미모역 인근에서 괴로사 방지 대체 마련을 축구하는 결정이용 나건 제 도로를 달리고 있다.

보건·돌봄·택배 등 '대면 노동'

공제조직 활성화로 빈틈 메워야

노돗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안 토크 콘서 하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대 첫 사례다. 이 조래는 팔수 노동자를 '감' 자난 18일 전국 사회인대경에 지방생무협의회 등이 연 교리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의 경제 정책 토크 콘서트에 수 없으며, 위험수당이 이들의 안전할 권리

및 최자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히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로 규정 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 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최근 들어 특수 했다. 의료·돌봄·복지·안전·불류·운송 등 한 제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제됐다. 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의 법 의 언무를 점요 대상으로 역기에놓았다. 조 전 구청장은 '요안의 들에서 몸이 불위하 과 제도로는 포관한 수 없는 양영이 점점 :

레에는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배달 물 지고 있다"며 "이들처럼 조직화가 어려운 5 본계회 수립, 실태조사, 근로조건 개선과 재 방 증가로 과로에 시달리는 배배 노동자 등 동자들에게는 각종 생활과 안전 문제를 해 화·서비스제공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이 포함 이 없었다면 우리가 로로나 위기를 극복하 결하는 데 공제화가 유쾌한 방안이 될 수 있 지난 16일에는 필수 노동자 지원제도에 대 노동이 멈추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 지대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에게 보완적인 해 논의하는 정책 토크 본서트 자리도 마련 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 사회보장체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됐다. 전국 사회인대경제 지방정부럽의회와 초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현계가 있을 수밖에 것이다. 한국사회가치언대기급 등이 '코로나 시대의 없다. 광역단체육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 장지언 한국사회가치언대기급 경영기회

트에는 정위오 성동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성동구는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등 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현동조합, 공제조합 평수 노동자 조례를 제정한 배경과 필요성 설·보육 등 공공 부문의 평수 노동자들에 노동자현동조한 플랫폼현동조한 등으로 발 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에 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고 집었다. 장심

안했다. 성동구 조례가 적용 대상을 근로기 있다"고 제안했다. 유튜브 화면 감우리 를 대체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택배 노

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런 불수 다"고 말했다. 산재 등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

심장도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는 노동 환경 게 위험수당을 자급하고 안전장비와 심리 전해왔다"며 "경제 사회 환경 변화가 가속 치료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화하는 지금이 이해관계자 참여, 사람 존중 은 기업들과 한약을 맺어 자발적인 처우 개 과 같은 사회적 경제 원칙들이 다시 빛을 빌

보조금 등 이세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건 작은 "코로나)이로 이하 경제적 타격이 봉안 정 노동자에게 집중되면서 고용보험을 중심 장은 "첫돗구의 필수 노동자 자원 조래는 의 고 있다. 생계자급 소액 용자 사업을 통해 고 미 있는 모범 사례 라고 평가하면서도, 배달 용보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 노동 · 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랙폰 노동자 자들이 소유하는 다양한 단위의 자조장 3 등 다양한 교육 형태를 포괄해야 한다고 제 사례를 확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연대기금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지원 지작한 것이다. 또 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쉴 을 받아 소액대충을 통한 노동자 공제회 육

수 있는 귀리'는 평수 노돗자에게도 예외일 성사업을 이당 중으로 시작한 계획이다. 이름규 한거려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Mee@hani.co.kr 33.5 X 33.2

서울신문

2020년 09월 21일 (월)

태조사 건강은 보며 태배 노도자의 주 화구

노동시간은 71 3시간에 이르렀다. 규모나19

로 늘어난 업무시간에 대해선 '30% 늘었다'

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택배 불량

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택배 노동자?

코로나 반역의 최저성에서 부부하고 인

는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도 발표됐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노조 정

책궁장은 "옥해 심태조사에서 가호사의

85%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최근 3

개월간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단한

비용도 '20%나 됐다"며 "인력 부족은 화자!

안전 및 생명하고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느 "돼? 제1의 균로나가 와도 보거의공체계

가 붕괴되지 않게 하려면 인력 확충이 반

대부이미주다 미형배 이해시 기약배 의

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필수 노동자 지원

정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등의 노력

■불안정 노동의 버팀목, 공제회 이날 토크

서트에서는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갈수

로 느고 이느 프래프 노토자 드 분야지 노토

자를 돕기 위해 노동자 공제회를 활성화해

야 한다는 재안도 나왔다. 김형탁 노회찬재

다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노조 조치품이

은 기운이게다고 약소해다

명이 과로로 숨졌다.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를 기억하자

🐼 자치광장

서울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에서 요양보호사로 활 통하는 지선숙씨는 하루 3시간씩 세 집에 들러 어르신들의 식사와 세면, 기저귀 케어를 도맡는다. 지난 3월 초고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 을 때도 지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요양 보호사 업무를 지속했다.

성동구에만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1100명의 어르신이 있고 1400명의 요양보호사가 이들을 보살피고 있 다. 그런데 만약 돌봄 노동자들이 하 루라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단은 지씨의 돌봄 을 받는 이봉원 어르신의 말씀을 통 죽는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다. 그가 돌봐주는 3시 간이 나에게는 매우 절실하다."

세상이 멈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멈춘다고 해도 반드시 현장에 나가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들이 일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사회 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필수노동자 라고 부른다. 지씨와 같은 돌봄 노동 자 말고도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 을 치료하는 의사·간호사와 함께 병 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 는 조리원·세탁원 같은 의료지원인 력, 고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우 리에게 생필품을 전달해 주는 배달 노동자 등이 필수노동자다.

필수노동자들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했다. 그러 나 무심하게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추고서야 그들의 존재 와 소중함을 깨달았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필수노동자 를 응원하는 캠페인이 시민들에 의 해 자발적으로 진행됐고, 이에 부응 하듯 위험수당과 무료건강검진 같은 지워정책을 논이하고 추진했다. 통 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호보 조 바이 든은 필수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대

아이러니하게도 방역모범 국가로 해 알 수 있다. "지 선생이 안 오면 난 전 세계의 칭송을 받았던 우리나라 는 필수노동자라 개념조차 날선 살 확이다. 과연 필수노동자 없이 K방 역은 성공학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순간도 필수노동자들은 우리를 위 해 일하고 있다. 이제라도 그들에게 마땅한 대우와 존중을 보장해야 한 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10일 성동구 는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K방역 숨은 영웅' 공공에서 지원

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 공포 돌봄·의료지원·택배노동자 보호 정부-지자체 역할분담 선결과제

재조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보육 등 지다. 그는 종부에서 수도콘에 사회

원에 관한 조례'를 10일 공포, 가치 발까지 구슬망을 흘린다. 그는 "코모 립수노동자는 재난상황에서도 각 - 것도 못하는 어르신을 어쩌죠. #그 IN TORRESTANT AND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AND ADDRESS OF THE PROPERTY ADDRESS OF THE PROPERTY AND ADDRESS OF THE PROPERTY ADDRESS OF THE PROPERTY AND ADDRESS OF THE PROPERTY ADDRESS OF 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 임금에 감염위험하지 안고 일하는

청소 등을 담당하는 의료지원인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외부 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나 '키 위커 (Key-Worker) '코 칭 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마면할 준비 중이다. 16일에는 전국 사회인

(가병-62)씨도 대표적인 접수노동 동음 해왔다"며 "접수노동자들이 그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접수노동자에

지역사점을 지배하는 노동자들 피로 전 거리두가 25단계를 유지하면서 도가 한층 높이지고 있는 가운데 서 '최대한 집에만 머무르라'고 하는 가 용 성동구가 이용을 공공자원처럼 - 운데도 하루 3시간에 거동이 불편한 지위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바련 고객을 방문하다. 답답한 마스크를 했다. 성동구는 '웹수노동자 보호·지 착용한 제 식사부터 목욕 기자귀 수 나가 건은 난다"면서도 "혼자 아직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 와중에도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 정책보크론서트를 연다. 회장인 정. 도출과 함께 국회 입법을 봉한 제1

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취약 이유다.

면방을 받아가 있다"가 선명했다. 나는 간단 의학에 노출의 상태에서 구현장은 이난 분수노들과 지원되는 개서 정보이 환영지자되면 제공지

계층 등부과 보유분야 중사자를 비 성동구는 조례에 근거해 '성동형' 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폈으 때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나이 롯데 의료기관에서 조리나 시설관리 웹수노동자' 계념을 정의하고 지원 가 있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각종 가 정부와 광약-기초자자체간 역할

매배종시자 등 불유·교통본야 노동 문가를 포함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직 생-다 등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미국 회를 꾸리는게 먼저 전문적인 실택 한 사회적 공간대 형성에도 나섰다. 한 개념이지만 논의가 확박히 이미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조사를 통해 제안에 따른 구체적인 경원으 구형장부터 [1일 국제포함에 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면 법 '에션설 위키(Essential-Worker 지원 대상을 규칙하고 노동여건 개 서 필수노동자를 주제로 한 발표를 수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화산5 해 일짜감치 지원에 나섰다"며 "K- 예정이다. 정원으 성동구용장은 "고 대경제 지방평부협의회에서 '코로나 다 더 현망하게 구화함 수 있을 것' 방역의 숨은 영웅인 필수노동자들의 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온라인 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사회적 함으

경력 12년차 요양보호사 지상옥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수고로운 노 의 필요성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다. 원 등이 선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積極的な言論活動 政策討論会開催及び参加

「牧民官クラブ| 10周年記念国際フォー ラムオンライン討論会 ('20.9.11)

全国社会連帯経済地方政府協議会 「コロナ時代の労働と社会的経済 トークコンサート ('20.9.16.)

国会「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為の政策 及び制度づくりし討論会 (20.10.6)

大統領府社会サービス院介護労働者懇談会(' 20.10.8.)

ソウル市人権カンファレンス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支援条例事例発表(' 20.12.7.)

推進成果

城東区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に関する条例の意義

条例は地域の変化を捉えて問題を発見した時、それを解決する何より Seongdong-gu Process も最新で、最適な、最高の方法

条例制定 概念合意 国会 立法 事業施行 基礎政府 実証事例 政策 広域政府 中央政府 発展 (効果検証) 広報・キャ ンペーン コンセンサス ガバナ 形成・世論形 ンス 成・圧力

社会 的支

現場行政に責任ある基礎政府は地域社会において、現行法で規定できていない社会問題が発生 した時、中央政府と国会をただ眺めて待つよりは、地域住民との意思疎通による自治的解決策 を策定し、これを反映した条例を制定することで新たな制度を創造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広 域政府と中央政府及び国会はこのような姿を見て現行法と制度が現実に対応していないという シグナルを受け止め、現行法の改正または基礎政府の解決策を支援する新たな法を樹立しなけ 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プロセスが絶えず繰り返される時、国家行政は急速に変化する現 代社会で発生する問題に適切に対処することができます。

城東区は2015年からジェントリフィケーションの現状に対する解決策を模索する為に条例を 制定し、先制的に地域社会問題を解決して地域商圏を保護し、また健全に発展させています。



チョン・ウォンオ 城東区長

推進成果 OUTCOMES

● 社会的コンセンサスの拡散と政府・国会の動き



66

城東区が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支援条例を制定して模範を作っています。

他の地方自治体の賛同もお願いいたします。

介護のような対面サービスはコロナのような非常状況においても、コミュニティを維持するためになくてはならない必須労働です。コミュニティに必須の対面活動をしながら自らは危険に晒されるしかない方々は国の特別な保護を受けねばなりません。

99

ムン・ジェイン大統領、社会サービス院介護労働者オンライン懇談会(20.10.8.)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苦労に対する正当な評価は 遅れましたが,今すぐにでも始めねばなりません。 チョン・ウォンオ城東区長が始めた意義ある行動を共に 民主党がベンチマーキングして全国的政策として拡散 できるよう努力します。

イ・ナギョン党代表、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城東区現場懇談会('20.10.3.)



推進成果 OUTCOMES

● 社会的コンセンサスの拡散と政府・国会の動き

20.9.22 ムンジェイン大統領、国務会議において「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支援対策づくり」を指示

20.10.3. イ・ナギョン共に民主党代表、ソンス洞テジン運輸現場懇談会

20.10.6. 国会討論会「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為の政策及び制度づくり」

20.10.6.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労働条件改善の為の「汎政府タスクフォース(TF)」発足

20.10.7. ムン・ジェイン大統領、介護労働者懇談会「城東区の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支援条例制定は模範」

20.10.23. ソウル特別市議会「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に関する条例制定」討論会、発表

20.12.7. 2020ソウル人権カンファレンス、「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の意義」発表

20.12.14. 政府合同「コロナ19対応の為の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対策| 案発表

21.1.15. 訪問介護従事者等に対する一時支援金支援政策発表(雇用労働部)

コロナ19対応の為の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対策の一環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 필수업무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 65개 중 19개 과제 추진 완료
 -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推進成果 OUTCOMES

● 立法化、城東区の条例が8カ月で法律に制定

城東区の条例制定に賛同した基礎·広域地方政府の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に関する条例 制定した地方政府の数 69('21.8.17.基準)

46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7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9	경상남도 황원시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51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5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6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8	물산광역시 물주군	물산광역시 물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9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0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1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2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4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5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7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르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8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9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城東区が初の条例制定8カ月後('21.5.18.) 必須業務指定及び従事者保護・支援に関する法律制定 '21.11.19.施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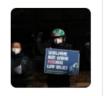
- 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필수업무" 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3. "필수업무 종사자" 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핵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환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단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

👆 한겨레

성동구가 이끈 '필수노동자 보호법', 8개월 만에 국회 통과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필수업 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에 관해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 ... 2021, 5, 2.



推進成果 OUTCOMES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政策推進体系により政府間ガバナンスを構築

汎政府エッセンシャ ルワーカーTF委員

政府合同必須労働者支援対策履行点検

必須労働者地方政府 推進団 団長

政府間関係

汎政府「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TF】委員参加

構成 雇用労働部長官,保健福祉,国土交通,環境部次官及びファン・ミョンソン論山市長, チョン・ウォンオ城東区長

20.10.6.~20.12.14.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TF構成、TF会議(1次10.6, 2次11.6, 3次12.2.)及び分野別実務会議(20余回),現場懇談会、政府合同「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対策」保健・医療,介護,運送,環境美化等5分野別65課題発表

21.5.18. 「必須業務指定及び従事者保護・支援に関する法律」制定 災難時必須業務従事者指定,支援計画樹立・施行,委員会設置等

21.5.26. 政府合同「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対策」履行点検会議参加

政府合同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 支援総合対策

(21.5.18.基準,完了19件,正常推進46件)

このうち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条例 が発展した法律を含む.

宅配労働者過労死防止及び処遇改善の 為の

「生活物流サービス法」制定(施行予 定)

史上初「家事労働者」の労働権を認める

「家事勤労者法」国会議決(施行予定)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 地方政府推進団

団長チョン・ウォンオ城東区長,35地方 政府が参加

(条例制定69地方政府)

「必須業務従事者法」制定及び同法施行令に

よる協業体系構築と事業の充実化貢献 に努力 政府間協業体系(役割分担)(案)

구분		주요 내용		
제·개정	완료(4)	■ 제정: 생활물류법(21.1.26), 필수업무중사자법(5.18), 가사근로자법(5.21. 국의통과) ■ 개정: 고용보험법(21.1.5. 특고중사자 적용 확대), 산제보험법(21.1.5. 특고중사자 적용제외 사유 제한)		
(771)	정상추진(3)	■ 제정: 사회서비스원법(상임위 계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마련 중, 직종별 건강진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완료(9)	 메뉴얼 등: 방역종사자보호지침(21.1.), 대리운전 보험가입조회시스템 (21.1.), 아이돌보미 안전매뉴암(21.2.), 공공방약기동반 지침(21.3.) 등 대책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랩, 발표(20.12.) 		
점검 등 (36개)	정상추진(27)	 매뉴얼 등: 100% 종량제봉투 사용 금지, 간호인력 인권교육 강화 등 대책 등: 산재보험 전속성 개편 로드뎁 마련 점검관리 등: 필수 사업장 방역 관리,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후속 조지, 요양시설·물센터 근로감독 등 		
예산지원 (22개)	완료(5)	 신증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 등 		
	정상추진(17)	■ 직종별 건강진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마스크 지원, 요양요원 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기관 보험가입 지원, 버스기사 훈련지원 등		

基礎自 治体 従事者保護,条例制定·拡散,政策伝達体系確立

(支援対象)社会福祉介護,保育従事者,中小病院,地域公共交通,環境美化,共同住宅管理従事者等

広域自 治体 **勤労環境及び条件改善,基礎地方政府事業支援** (支援対象)公共交通,広域範囲総合病院,教師等教育従事者,コールセンター従事者等

中央 政府 従事者処遇改善,社会的セーフティネット強化, 制度改善

(支援対象)大学病院及び国立病院,国家交通網,国 家基幹産業,地域物流拠点従事者

推進成果 OUTCOMES

● 訪問介護従事者・放課後教師に対する一時支援金の改善

訪問介護従事者・放課後教師 一時支援金の現実化

現場の意見取りまとめ

支給対象の資格基準を修正

追加支給の建議

一時支援金の 改善を建議 66

政府が訪問介護従事者、放課後教師に対する一時支援金を支給します。 歓迎されるべきことです。災難支援金支給の明確な対象ではなかった 方たちです。

これから政府政策により一層現場の声が反映されて、政策趣旨のとおりに効果が表れることを願い、城東区の現況と事例をお話します。 城東区の現況を見てみると、従事者のうち16%だけが条件を満たします。一時支援金の支給基準を緩和し、追加支給すれば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に漏れなく支給され、また力となることでしょう。 今は政策の迅速さと同じく政策の方向性が重要な時です。



既に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条例を制定して事業推進の経験を持つ地方政府と中央政府の緊密な協力が必要です。

99

チョン・ウォンオ城東区長(21.1.29.)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

-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 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회)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 이와 관련, 2021년 3월 말까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천 3백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一時支援金支給基準の緩和 2019年所得を反映

- →2020年基準所得を反映
- 一時支援金2回支給

推進成果 COMES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へのワクチン優先接種対象の拡大・時期調整

優先接種の時期、対象提案

1次接種と2次接種の間隔 を狭める為ワクチンの種類 を変更

教育,保育従事者優先接種

コロナ19予防接種

-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地方政府推進団第2次会議、エッセンシャルワー 21.2. カーワクチン優先接種対象の拡大 保育・介護人材接種時期7月調整及び接種間隔が短いファイザー・モデルナ を提案
- 21.4.27 全国市長郡守区長協議会とソウル特別市労働組合懇談会、提案
- 21.5.26. 雇用労働部主宰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総合対策履行点検会議 汎政府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保護・支援TF委員として再度建議
- 21.5.26. 雇用労働部長官、『必須業務従事者ワクチン優先接種拡大』発表 具体的対象及び日程、接種ワクチンの種類は予防接種専門委員会*で決定
- 疾病庁、保育及び介護人材接種時期及びファイザー・モデルナ接種を発表 21.6.4.
- 21.6.17. 第3四半期ワクチン接種計画時、自治体自主接種による必須人材(エッセン シャルワーカー)接種を含む
- 21 7 31 2週間の調査・分析、城東区管内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ワクチン接種現 況把握及び死角地帯の発掘 自治体自主接種に追加反映し100%予約案内及び接種目標(21.8.26.確認可

유치원·어린이집·초등 1~2학년 교사 '화이자·모더나 백신' 맞는다

⑦ 연합뉴스

노도현 기자

2021.06.04 15:15 입력 \

택배기사 등 접종시기 빨라지나...필수노동자 백신 우선접종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 부처가 참여한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점검 회 의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 ... 2021, 5, 26,



● 必須業務従事者法施行(21.11.19.)後の課題

これ以上災難・災害と日常生活の区分は不可能 法と制度を土台に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地位向上が必要



NEXTPHASI

今後の課題



1. 安全手当の新設及び労働条件の改善 職務危険性に対する賃金保障体系構築と労働条件 の改善



2. 政府間ガバナンスの強化 体系的な政府の役割分担と法律上の委員会委員と して地方政府が参加し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 をとる



3.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参加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参加を絶えず強化すること で市民の安心及び制度への信頼を高める 今回の法制化を通じて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へのより実質的で効果的な処遇改善が可能な土台が設けられた。

これを基に労働に対する評価基準が変化するものと期待する。

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の場合、高い社会的価値にもかかわらず、創出される経済的価値が低く、低賃金が当然視されている。 経済的価値中心に第定された韓国の賃金体

経済的価値中心に策定された韓国の賃金体 系が生んだ結果である。

今回の法制定をきっかけに労働に対する評価基準が変わり始めた。

労働が創出する社会的価値を尊重すべきだという認識を植え付ける契機となるだろう。

99

Conclusion and QnA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

施設から人に、事件から日常へ→危機に対処する観点の変化 相互依存を前提とした人と人をつなぐ政策→人と制度に対する信頼向上